



2024.7.15.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102호

## 청년의 지역 거주 의향과 삶의 만족도



민보경(삶의질그룹장)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ISSN

2733-8258

발행일

2024년 7월 15일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 Contents

<b>01</b>	<b>02</b>	<b>02</b>	<b>04</b>
서론		연구방법	
<b>03</b>	<b>07</b>	<b>04</b>	<b>13</b>
분석 결과		결론	



## 요약

---

### ■ 청년들의 거주의향은 지역만족도와 정주환경에 대한 평가이자 지역정착에 대한 시사점 제공

-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은 지역경제 쇠퇴, 지역활력 저하 등 지역의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청년이탈을 막고 청년층 인구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 활발
- 본 연구는 청년들의 현재 지역에서의 거주의향과 지역에서의 정주여건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높이기 위한 정주요인들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지역거주 의향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이를 위해 2023년 국회미래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조사 중 20-39세 청년들의 응답을 추출하여 삶의 만족도와 지역거주의향을 분석함

### ■ 분석결과, 5년후 현재 거주하는 시도, 시군구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동의수준은 생활수준 만족도, 동네환경 만족도, 지역생활에서의 편의성과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냄

- 생활수준 만족도, 동네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5년 후 계속 거주의향이 높게 나타남
- 지역생활에서의 운동(산책, 조깅) 적합성, 지역생활에 있어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동네 안전, 친밀감이 높을수록 지역 거주 의향이 높은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연령별 차이 발견

### ■ 대도시, 중소도시, 비도시로 구분한 지역유형에 따라 청년들의 거주의향, 삶의 만족도, 지역생활의 평균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확인

- 5년 후에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도·시군구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은 대도시, 중소도시, 비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남. 즉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계속거주의향이 높은 반면,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계속거주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음
- 생활수준 만족도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청년이 비도시지역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동네환경 만족도는 비도시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편임을 확인
-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운동적합성, 장보기 용이성, 공공시설 접근성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비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친밀감, 도움 등 이웃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비도시지역이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함을 보여줌

### ■ 지역청년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 필요

- 지역에서의 공공시설, 동네 안전, 친밀감 등은 현재 거주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계속 거주하는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일자리 등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지역에서 양질의 생활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비도시지역에서의 운동적합성, 장보기, 공공시설 등의 생활여건은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동네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응답하여 청년의 지역에서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동네 수준에서 생활 편의성과 안전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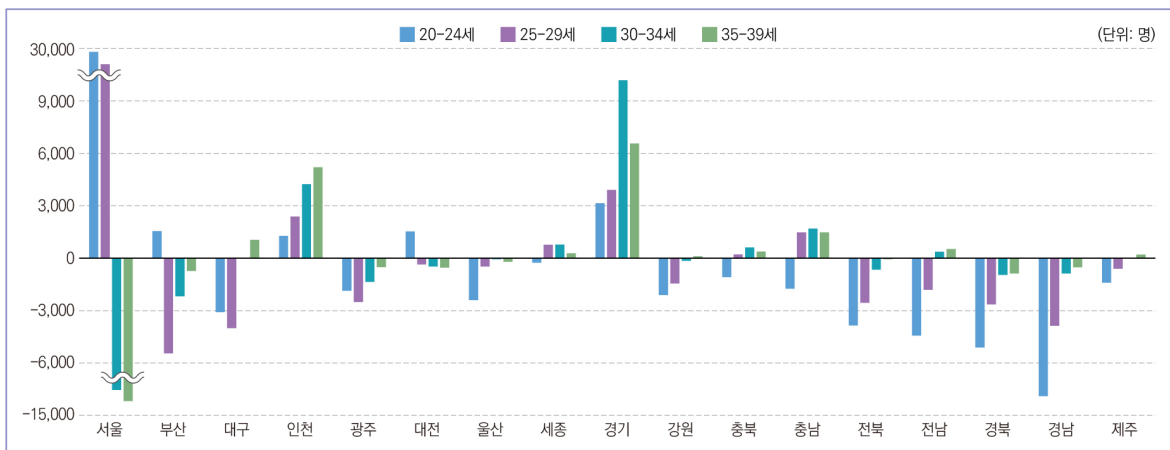
## 서론

## ■ 청년들의 지역생활의 만족도와 지역 정주여건

## ○ 청년 인구 증감 및 이동의 지역별 차이

-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이 지역경제 쇠퇴, 지역활력 저하 등 지역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청년 이탈을 막고 청년층 인구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음
- 청년의 인구 증감률은 도시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최근 10년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평균 -0.6%, 수도권 및 광역시도 내 인구 5만-50만 미만 중소도시는 -1.1%, 인구 5만-50만 미만 중소도시 -2.1%, 인구 5만 미만 군지역은 -3.3% 로 지방의 중소도시, 비도시 지역에서 청년 인구감소율이 높게 나타남(장민영 외, 2021)
- 통계청 자료를 통해 2023년 청년들의 시도간 이동을 살펴보면(그림1 참고), 20대 청년의 유출보다 유입이 많은 지역은 서울(46,205명), 경기(7,049명), 인천(3,657명), 대전(1,173명), 세종(502명)이며, 30대 청년 유입이 많은 지역은 경기(16,748명), 인천(9,434명), 충남(3,167명), 세종(1,053명), 대구(1,017명), 충북(984명), 전남(894명), 제주(235명)임을 알 수 있음

그림 1 시도별 청년 순이동자 수(2023)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청년들의 정주 및 이동의 결정은 일자리 등 경제적 요인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접근 필요
  - 청년의 지역 정착에 일자리(김화연·이대웅, 2022; 임태경, 2024), 문화·여가 인프라(임태경, 2024), 생활인프라(김화연·이대웅, 2022), 삶의 만족도(엄창욱 외, 2018), 자연환경·의료서비스 등 거주만족도(이창관·박선주, 2024), 혼인 및 가구원 증가 의향(권정표·박광수, 2023)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역 청년 정책은 주로 일자리 중심의 경제적 여건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청년들의 지역에서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지역에서의 청년 유출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을 증가시키려는 노력 필요
  
- 연구질문: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거주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거주 지역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은 차이가 나타날까?
  -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들의 계속 거주의향을 분석하여 지역청년의 정주요인을 확인하고, 지역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청년들의 지역거주 영향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2023년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행복조사 문항에 응답한 결과에 기반하여 분석하고자 함
    - 본 연구는 20-39세 청년 응답자의 결과를 활용하며, 대도시, 중소도시, 비도시 등 지역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거주의향을 분석함

## 02

## 연구방법

## ■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 한국인의 행복조사 대상은 전국 거주 만15세 이상의 일반 국민이며, 표본들은 통계청 집계구를 활용함
  - 조사방법은 가구 방문하여 가구원 전원을 면접 조사하였고, 조사 완료된 전체 표본 수는 총 7,582가구의 16,305명으로 본 연구는 그 중 20~39세 청년 4,491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모집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실시

## ■ 자료분석 방법

- 청년들의 지역 거주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실시하고, 대도시, 중소도시, 비도시 등 거주지역 유형별 거주의향의 차이 분석
  - 청년들의 거주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변수들을 확인함으로써 거주의향과 관련있는 요인 검토
  - 거주지역별 계속 거주 의향과 삶의 만족도를 확인하여 청년의 삶의 만족도 제고 및 지역정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지역 거주의향 관련 변수 선정: 선행연구 검토
  - 지역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는 주거환경(홍성호·임준홍, 2023) 및 생활인프라(권정표·박광수, 2023)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역의 거주의향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공동체의식(이창관·박선주, 2024), 직업 가치관(김현우, 2023) 등 사회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역의 객관적 주거환경이 같더라도 연령 등 개인 특성에 따라 주거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이창관·박선주, 2024)
  - 주거환경은 주택 및 근린환경 요인, 안전 및 프라이버시, 주거안전, 도시활동과 소음, 열린 자연공간, 근린 인프라, 접근성과 이동성, 이웃과의 관계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Amérigo & Aragones, 1997; 이창관·박선주, 2024 재인용)

-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인의 행복조사 문항에서 활용가능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개인특성(성별, 배우자 유무, 근로형태, 학력, 소득, 가구, 주택보유, 주택유형), 거주지역특성(시도 거주기간, 시군구 거주기간, 통근시간,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비도시), 삶의 만족도(생활수준 만족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의 양 만족도, 동네환경 만족도, 5년 후 미래 삶의 만족에 대한 예상, 자유롭게 인생을 선택하는 정도), 가치관(미래보다 현재 중요, 여가보다 일 우선, 취업기회의 평등인식, 교육기회 평등인식), 지역생활 편의성(운동활동, 식료품 구입, 공공시설 접근성, 안전,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도움)을 사용하여 분석함

표 1 본 연구의 측정 변수 설명

유형	변수	측정
종속변수	지역(시도/시군구) 거주의향	향후 5년 이후에도 현재 시도/시군구에서 거주하고 싶다 (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
개인특성	성별	여성1, 남성0 (준거: 남성)
	혼인여부(배우자 유무)	기혼(배우자 있음)=1, 배우자없음(미혼, 이혼, 사별)=0 (준거: 배우자없음)
	근로형태	상용직(자영업포함)=1, 비상용직(일용직, 임시직, 무직)=0 (준거: 비상용직)
	학력	대학재학이상=1, 고졸이하=0 (준거: 고졸이하)
	개인소득	월 평균 개인소득 (1: 소득없음, 2: 100만원 미만, 3: 100-200만원, 4: 200-300만원, 5: 300-400만원, 6: 400-500만원, 7: 500-600만원, 8: 600-700만원, 9: 700-800만원, 10: 800-900만원, 11: 900-1,000만원, 12: 1,000만원 이상)
	가구(1인가구 여부)	1인가구=1, 다인가구=0 (준거: 다인가구)
	주택보유	자가=1, 전월세=0 (준거: 전월세)
	주택유형	아파트=1, 비아파트(단독주택, 연립 등)=0 (준거: 비아파트)
지역특성	시도거주기간	현재 시도 거주 기간(년)
	시군구거주기간	현재 시군구 거주 기간(년)
	통근시간	출퇴근 평균 시간(분)
	수도권여부	수도권=1, 비수도권=0 (준거: 비수도권)
	도시여부	도시(대도시, 중소도시)=1, 비도시(도시화되고 있는 근교지역, 농촌, 여촌, 산촌)=0 (준거: 비도시)
만족도	생활수준 만족도	자신의 삶에 있어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 매우 만족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의 양 만족	자신의 삶에 있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 만족도 (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 매우 만족한다)
	동네환경 만족도	자신의 삶에 있어 동네환경에 대한 만족도 (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 매우 만족한다)
	미래의 삶 만족	5년 후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 (0: 전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10: 매우 만족할 것이다)
	자유롭게 선택의 정도	자유롭게 선택하며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0: 전혀 할 수 없음 - 10: 완벽하게 할 수 있음)

유형	변수	측정
가치관	미래보다 현재 중요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 중요 (0: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다-10: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여가보다 일 우선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 (0: 전혀 동의 안함-5: 매우 동의함)
	취업기회 평등	취업기회 평등 정도(0: 매우불평등 - 5: 매우평등)
	교육기회 평등	교육기회 평등 정도(0: 매우불평등 - 5: 매우평등)
지역생활	운동	내가 사는 동네는 조깅, 산책 같은 운동을 하기에 적합하다 (1:전혀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
	식료품 구입(장보기)	내가 사는 동네는 식료품 구입, 식재료 장보기가 용이하다 (1: 전혀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
	공공시설	내가 사는 동네에는 공공시설(관공서, 도서관, 공원 등)이 충분히 있다 (1: 전혀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
	동네 안전	내가 사는 동네는 안전하다(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
	친밀감, 관심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관심을 보인다 (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
	도움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려 한다 (1: 전혀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

**표 2** 분석 대상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4,491)

특징	구분	비율
성별	남성	50.3%
	여성	49.7%
연령대	20-24세	16.6%
	25-29세	31.6%
	30-34세	24.4%
	35-39세	27.4%
혼인상태	미혼(미혼부모 포함)	67.5%
	기혼(재혼 포함)	31.8%
	사별	0.1%
	이혼	0.6%
학력	고졸이하	10.0%
	대학재학, 대졸	88.9%
	대학원 졸	1.1%
개인소득	100만원미만	26.6%
	100-300만원	46.5%
	300-500만원	25.1%
	500만원이상	1.9%
거주지역유형	대도시	46.1%
	중소도시	38.6%
	비도시(도시화 근교지역, 농산어촌 등)	15.3%



## 03

## 분석 결과

1. 청년들의 계속  
거주의향에 대한  
영향 요인

- 청년층을 생애주기별 모델1(20-24세), 모델2(25-29세), 모델3(30-34세), 모델4(35-39세)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도시지역 거주 청년들의 현재 시도에서의 계속거주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발견되었음
  - 20-24세 청년들의 5년 이후 현재 시도에서 계속거주의향에 대한 응답은 미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동네에서 운동(산책, 조깅)하기 적합할수록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자유롭게 선택하며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을수록 계속거주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25-29세 청년들은 근로형태, 시도거주기간, 동네환경 만족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정도, 교육기회의 평등 인식, 지역생활에서의 운동 적합성,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시도 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재학 이상의 경우,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의 양 만족도가 높을수록 계속거주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
  - 30-34세 청년들은 혼인여부, 교육수준, 시도거주기간, 미래의 삶 만족,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에 대한 동의수준, 동네 안전, 지역에서의 도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시도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 35-39세 청년들은 여성의 경우, 기혼의 경우, 대학재학이상,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시도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의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통근시간이 길수록, 비수도권의 경우, 생활수준 만족도가 높을수록,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의 양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유롭게 선택하며 인생을 산다에 대한 동의수준이 낮을수록, 동네에서 운동하기 적합할수록, 동네 안전이 높을수록 현재 시도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의향에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표 3 시도 계속거주 의향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결과

변수		모델1: 20-24세		모델2: 25-29세		모델3: 30-34세		모델4: 35-39세	
		B	베타	B	베타	B	베타	B	베타
	(상수)	1.098		1.244***		-0.508		0.146	
개인 특성	성별(여성1)	0.117	0.066	-0.091	-0.052	-0.064	-0.036	0.140*	0.083
	혼인여부(기혼1)	0.313	0.044	0.165	0.055	0.301***	0.149	0.150*	0.089
	근로형태(상용직1)	0.064	0.030	0.355***	0.099	0.232	0.057	-0.085	-0.019
	학력(대재이상1)	0.061	0.033	-0.249**	-0.086	0.338***	0.106	0.229**	0.083
	개인소득	0.015	0.012	-0.075	-0.063	-0.016	-0.014	0.079**	0.094
	가구(1인가구1)	0.315	0.168	-0.107	-0.060	0.131	0.067	0.120	0.069
	주택보유(자가1)	0.191	0.107	-0.030	-0.017	0.096	0.054	0.065	0.038
	주택유형(아파트1)	0.134	0.074	-0.120*	-0.068	-0.013	-0.007	-0.118*	-0.068
지역 특성	시도거주기간	0.012	0.118	0.015***	0.180	0.020***	0.264	0.010***	0.173
	시군구거주기간	-0.006	-0.064	0.000	0.002	-0.007*	-0.091	0.004	0.057
	통근시간	-0.005	-0.145	-0.001	-0.020	-0.000	-0.002	0.003***	0.111
	수도권여부(수도권1)	-0.014	-0.008	-0.085	-0.048	-0.026	-0.014	-0.188**	-0.110
	도시(도시1)	0.615**	0.238	0.331***	0.121	0.506***	0.168	0.242**	0.090
삶의 만족	생활수준만족	-0.021	-0.031	-0.016	-0.026	0.017	0.025	0.066**	0.109
	좋아하는 일 시간양 만족	-0.002	-0.003	-0.059**	-0.098	-0.029	-0.049	-0.054**	-0.098
	동네환경 만족	-0.045	-0.066	0.093***	0.151	0.020	0.031	0.026	0.042
	미래 삶 만족	0.317***	0.415	0.024	0.032	0.070*	0.091	0.066*	0.090
	자유인생	-0.139*	-0.202	0.065**	0.093	0.002	0.003	-0.066**	-0.097
가치관	현재행복 중요	0.013	0.026	0.009	0.019	0.047***	0.103	0.014	0.029
	여가보다 일 우선	-0.070	-0.068	0.020	0.021	0.056	0.058	0.068*	0.072
	취업기회 평등	0.063	0.070	0.006	0.007	0.048	0.055	0.036	0.045
	교육기회 평등	-0.038	-0.040	0.072*	0.083	0.064	0.069	0.061	0.070
지역 생활	운동	0.267**	0.245	0.093*	0.082	0.042	0.034	0.084*	0.072
	장보기	-0.075	-0.075	0.016	0.014	-0.017	-0.016	0.022	0.021
	공공시설	0.087	0.087	0.066	0.063	0.043	0.042	0.075*	0.074
	동네 안전	-0.181	-0.169	0.060	0.054	0.130**	0.108	0.156***	0.142
	친밀감, 관심	0.224	0.200	0.130**	0.124	0.037	0.034	0.012	0.012
	도움	-0.088	-0.077	-0.067	-0.063	0.145***	0.137	0.029	0.028
F		2.449***		8.114***		10.841***		10.761***	
adj. R <sup>2</sup>		0.165		0.168		0.230		0.233	
Durbin-Watson		1.500		1.727		1.720		1.845	

\*p&lt;.05, \*\*p&lt;.01, \*\*\*p&lt;.001

- 5년 이후 현재 시군구에서 계속 거주 의향은 모델1(20-24세), 모델2(25-29세), 모델3(30-34세), 모델4(35-39세)에서 공통적으로 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냄
  - 모델1(20-24세)은 시군구 거주기간, 미래 삶에 대한 만족도, 동네에서의 운동 적합성, 공공시설 접근성, 동네에서의 관심이 거주 의향에 정(+ )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나 동네 안전은 부(-)의 방향으로 나타남
  - 모델2(25-29세)는 상용직의 경우, 고졸이하, 시도거주기간이 길수록, 동네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유롭게 선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운동하기 적합할수록, 동네 안전이 높을수록, 관심이 높을수록 시군구에서 계속 거주하는 의향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나타냄
  - 모델3(30-34세) 분석결과 기혼의 경우, 상용직의 경우, 대학재학이상, 시도거주기간이 길수록, 통근시간이 짧을수록, 생활수준 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할수록, 여가보다 일을 우선할수록, 취업기회가 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동네 안전이 높을수록, 동네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수록 계속 거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모델4(35-39세)는 여성의 경우, 기혼의 경우,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시군구 거주기간이 길수록, 생활수준 만족도가 높을수록, 운동하기 적합할수록, 동네 안전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재 시군구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의향이 높은 경향을 확인

표 4 시군구 계속 거주 의향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결과

변수	모델1: 20-24세		모델2: 25-29세		모델3: 30-34세		모델4: 35-39세		
	B	베타	B	베타	B	베타	B	베타	
(상수)	-0.128		0.316		-0.679		0.038		
개인 특성	성별(여성1)	-0.182	-0.091	-0.011	-0.006	-0.057	-0.031	0.182**	0.105
	혼인여부(기혼1)	0.078	0.010	0.114	0.036	0.261**	0.125	0.153*	0.089
	근로형태(상용직1)	0.208	0.086	0.315**	0.083	0.282*	0.067	-0.127	-0.028
	학력(대재이상1)	0.109	0.052	-0.257**	-0.084	0.270**	0.081	0.152	0.054
	개인소득	0.038	0.027	0.003	0.003	0.009	0.008	0.088**	0.102
	가구(1인가구1)	-0.018	-0.009	-0.107	-0.057	0.103	0.051	0.034	0.019
	주택보유(자가1)	-0.037	-0.018	-0.094	-0.051	0.135	0.073	0.056	0.033
	주택유형(아파트1)	0.024	0.012	-0.097	-0.052	0.045	0.024	-0.116*	-0.066
지역 특성	시도거주기간	-0.025	-0.209	0.014***	0.151	0.010**	0.124	0.006*	0.092
	시군구거주기간	0.026*	0.251	0.003	0.032	-0.002	-0.029	0.008**	0.119
	통근시간	-0.004	-0.098	-0.002	-0.064	-0.004**	-0.102	0.002	0.055
	수도권여부(수도권1)	-0.028	-0.014	-0.047	-0.025	0.009	0.005	-0.047	-0.027
	도시(도시1)	0.603**	0.207	0.412***	0.143	0.442***	0.142	0.267**	0.097
삶의 만족	생활수준만족	-0.071	-0.094	0.008	0.013	0.098***	0.136	0.071**	0.114
	좋아하는 일 시간양 만족	-0.011	-0.018	-0.056*	-0.088	-0.065**	-0.107	-0.039	-0.070

변수		모델1: 20-24세		모델2: 25-29세		모델3: 30-34세		모델4: 35-39세	
		B	베타	B	베타	B	베타	B	베타
	동네환경 만족	0.025	0.032	0.098***	0.152	0.043	0.064	0.030	0.048
	미래 삶 만족	0.360***	0.418	0.008	0.011	0.014	0.017	0.049	0.064
	자유인생	-0.058	-0.075	0.103***	0.140	0.044	0.053	-0.059*	-0.084
가치관	현재행복 중요	-0.007	-0.013	0.016	0.033	0.067***	0.140	0.019	0.039
	여가보다 일 우선	-0.079	-0.068	0.037	0.037	0.110***	0.109	0.017	0.017
	취업기회 평등	0.013	0.013	-0.045	-0.053	0.109***	0.121	0.018	0.022
지역생활	교육기회 평등	0.025	0.023	0.058	0.063	-0.036	-0.037	0.056	0.063
	운동	0.328***	0.266	0.094*	0.079	0.069	0.055	0.111**	0.093
	장보기	-0.112	-0.099	-0.019	-0.016	-0.044	-0.039	0.024	0.023
	공공시설	0.240*	0.212	0.057	0.051	0.025	0.023	0.083*	0.080
	동네 안전	-0.286*	-0.236	0.110**	0.093	0.100*	0.080	0.154***	0.136
	친밀감, 관심	0.383**	0.304	0.110*	0.099	0.020	0.018	0.019	0.018
	도움	-0.170	-0.131	0.020	0.018	0.166***	0.151	0.061	0.057
F		3.168***		9.563***		10.839***		9.038***	
adj. R <sup>2</sup>		0.228		0.195		0.230		0.200	
Durbin-Watson		1.607		1.689		1.774		1.716	

\*p<.05, \*\*p<.01, \*\*\*p<.001

## 2. 거주지역별 평균 비교

### ■ 계속거주의향

- 향후 5년 이후에도 현재 시도에서 거주할 의향이 있다(5점 만점)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에서 현재 시도에서 계속거주의향은 평균 3.56점, 시군구 거주 의향은 평균 3.42점임을 확인 하였으며, 대도시(n=2,069명), 중소도시(n=1,735명), 비도시(n=687명)의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거주의향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음
  - 5년 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도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은 대도시 3.79점, 중소도시 3.42점, 비도시 3.1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 5년 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은 대도시 3.61점, 중소도시 3.31점, 비도시 3.00점으로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5 5년 후 계속 거주 의향 평균 비교

변수	지역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시도거주의향 (5점만점)	대도시(a)	3.79	.833	170.281***	c<b<a
	중소도시(b)	3.42	.871		
	비도시(c)	3.12	1.005		
시군구 거주 의향 (5점만점)	대도시(a)	3.61	.877	118.235***	c<b<a
	중소도시(b)	3.31	.933		
	비도시(c)	3.00	.992		

\*p<.05, \*\*p<.01, \*\*\*p<.001

■ 삶의 만족도

- 생활수준 만족도는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도시에서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동네환경 만족도는 비도시 지역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확인
  - 생활수준 만족도는 대도시(6.21점), 중소도시(6.17점)가 비도시(5.94점)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의 양 만족도는 대도시, 중소도시, 비도시의 차이가 분산분석에서는 확인되었으나 Scheffé 사후검증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5년후 미래의 삶에 대한 만족도 예상은 세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동네환경 만족도는 비도시(6.42점)가 대도시(6.20점), 중소도시(6.16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유로운 선택 정도는 대도시(6.59점), 비도시(6.62점)에 비해 중소도시(6.45점)가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음

표 6 삶의 만족도 평균 비교

변수	지역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생활수준 만족도 (10점 만점)	대도시(a)	6.21	1.366	8.188***	c<b,a
	중소도시(b)	6.17	1.347		
	비도시(c)	5.94	1.534		
좋아하는 일 시간양 만족도 (10점만점)	대도시(a)	6.27	1.516	3.141*	
	중소도시(b)	6.30	1.487		
	비도시(c)	6.45	1.657		
동네환경 만족도 (10점 만점)	대도시(a)	6.20	1.532	7.129***	b,a<c
	중소도시(b)	6.16	1.429		
	비도시(c)	6.42	1.560		
미래 삶 만족 (10점 만점)	대도시(a)	7.05	1.200	2.801	
	중소도시(b)	6.96	1.167		
	비도시(c)	6.98	1.219		
자유로운 선택 (10점 만점)	대도시(a)	6.59	1.259	7.126***	b<a,c
	중소도시(b)	6.45	1.240		
	비도시(c)	6.62	1.264		

\*p<.05, \*\*p<.01, \*\*\*p<.001

■ 지역생활 편의성

- 지역생활에서의 편의성, 친밀감 수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비도시에서 차이가 나타나 청년들의 지역생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운동(조깅, 산책) 적합성은 대도시(3.73점), 중소도시(3.74점)가 비도시(3.64점)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보기 용이성도 대도시(3.77점), 중소도시(3.69점)가 비도시(3.48점) 보다 상대적으로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남
- 공공시설(관공서, 도서관, 공원)의 접근성 역시 대도시(3.60점), 중소도시(3.57점)가 비도시(3.26점) 보다 높게 나타남
- 동네의 안전함은 중소도시(3.54점)가 대도시(3.72점), 비도시(3.71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동네 사람들의 관심 및 친밀감은 비도시(3.50점)가 대도시(3.24점), 중소도시(3.22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정도 역시 비도시(3.42점)가 대도시(3.18점), 중소도시(3.14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표 7 지역생활 특성  
변수 평균 비교

변수	지역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운동	대도시(a)	3.73	0.722	4.109*	c<b,a
	중소도시(b)	3.74	0.759		
	비도시(c)	3.64	0.855		
장보기	대도시(a)	3.77	0.808	27.145***	c<b,a
	중소도시(b)	3.69	0.791		
	비도시(c)	3.48	0.911		
공공시설	대도시(a)	3.60	0.851	36.069***	c<b,a
	중소도시(b)	3.57	0.804		
	비도시(c)	3.26	0.920		
동네 안전	대도시(a)	3.72	0.748	28.575***	b<c,a
	중소도시(b)	3.54	0.814		
	비도시(c)	3.71	0.730		
관심, 친밀감	대도시(a)	3.24	0.832	24.226***	b,a<c
	중소도시(b)	3.22	0.854		
	비도시(c)	3.50	0.745		
도움	대도시(a)	3.18	0.808	25.391***	b,a<c
	중소도시(b)	3.14	0.838		
	비도시(c)	3.42	0.738		

\*p<.05, \*\*p<.01, \*\*\*p<.001

## 04

## 결론

-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청년맞춤형 정주여건 개선 전략 마련
  - 청년들의 지역생활에서 운동적합성, 공공시설 접근성, 안전, 친밀감, 사회적 네트워크 등은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유형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비도시에서의 차이점 확인
    - 지역에서의 운동적합성, 공공시설, 동네 안전, 친밀감 등은 현재 거주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계속 거주하는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양질의 생활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분석결과, 거주하는 동네에서의 조깅, 산책 등 운동 적합성은 20대, 30대 청년들의 계속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여가, 레저 활동이 가능한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확인함
  -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일상적인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도시지역은 비도시지역에 비해 동네에서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시사
    - 지역유형별로 살펴보면, 비도시지역에서의 운동 적합성, 장보기, 공공시설 등의 생활여건은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동네 안전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응답하여 청년의 지역에서의 삶의 질 향상,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 비도시지역에서는 동네환경 만족도와 동네 사람들의 관심,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도시지역에 비해 우수하며 이러한 여건은 청년의 거주의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중소도시와 대도시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커뮤니티 내에서의 관심, 친밀감, 네트워크 등이 비도시지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지역에서의 우울감, 외로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구직활동을 하는 시기인 25-29세 청년은 상용직의 경우 계속거주 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안정된 일자리 여부가 지역정착에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됨

- 30대 청년은 동네 안전에 대한 인식이 계속거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혼인, 출산 등으로 가족을 구성하거나 자녀가 있는 30대에게는 지역의 안전이 계속거주를 위한 유의미한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비도시지역에서의 지역정착과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계속거주의향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비도시지역에서 청년인구 유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청년들이 현재 지역에서 향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의향은 대도시, 중소도시, 비도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중소도시, 비도시지역의 청년들은 현재 거주지역을 떠나 거주이전의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 청년들이 진학, 취업 등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대도시, 수도권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와 중소도시와 비도시지역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는 대목임
    - 지역별 삶의 만족도 분석 결과, 비도시지역 청년의 생활만족도가 도시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 및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동네환경 만족도, 자유롭게 선택하며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에 대한 동의수준은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중소도시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생활인프라 개선과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함
    - 본 분석은 한국인의 행복조사 문항을 활용함에 따라 노동시장, 일자리, 문화 등 청년의 지역거주 의향과 관련한 변수를 풍부하게 포함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 추가 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 이동 및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함



---

## 참고문헌

---

권정표·박광수(2023) 청년 1인 임차가구의 거주지 이동의향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6권 4호, 51-72.

김현우(2023) 청년세대 지역 간 이동자의 직업 가치관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지방행정연구 제 37권 제1호, 319-342.

김화연·이대웅(20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세대의 지방 정주의사 영향요인 연구: 청년정책과 생활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권 2호, 262-288.

엄창욱·노광욱·박상우(2018)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대구지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26권 제3호, 259-283.

이창관·박선주(2024)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 영향요인 분석: 자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6권1호, 1-33.

임태경(2024) 비수도권지역의 청년인구유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권역별·연령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제35권 제1호, 45-64.

장민영·임보영·송윤정·윤주선(2021)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홍성호·임준홍(2023) 주거환경만족도가 이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주택금융연구 7권 2호, 133-153.

**Amérigo, M. and Aragonés, J. I.**(1997),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Residential Satisfac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7: 47-57.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http://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http://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